

# 새 구장에서 새 출발... 다시 나는 한화



9월29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가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차 있다. 한화는 이날을 끝으로 정든 한화생명이글스파크와 작별하고 다음 시즌부터는 신축 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보금자리를 틀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2025시즌부터 새 경기장을 안방으로 사용한다. 한화는 올해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홈 경기장으로 썼고, 2025년부터는 2만여 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

한화생명이글스파크는 1964년 한발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지어졌으며 1982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OB 베이스의 홈구장으로 3년간 사용됐다. 이후 1986년 빙그레 이글스가 창단하면서 이곳을 홈 경기장으로 썼고, 2011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화는 2025년 새 홈 경기장 시대 개막을 맞아 대권에 도전할 전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2024시즌을 앞두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서 뛰던 류현진을 복귀시켰고, 시즌 도중에는 베테랑 김경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또 2024시즌이 끝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엄상백, 내야수 심우준을 한꺼번에 영입했으며 외국인 선수 라인업도 기존의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신규 영입한 투수 코디 폰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로 꾸렸다.

내년부터 신축구장서 홈 경기 새 홈구장 개막 여세 업고 대권 물이 야구계 "가을야구 이상 노력만" 역대 홈구장이전팀 성적 기대이하



한화이글스 홈구장으로 사용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총 면적 5만8594㎡에 2만여 석 규모로, 내년 3월 22일 '2025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완공될 예정이다. 10월13일 대전시 중구 한화이글스 신축 야구장(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사 현장. 연합뉴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투수 문동주와 김서현, 타자 채은성, 노시환 등이 건재한 만큼 올해 8위에서 내년에는 '가을야구' 이상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야구계 전망이다.

다만 2000년 이후 홈 경기장을 이전했던 팀들의 첫 해 성적은 살펴보면 '장밋빛 시즌' 기대감을 부풀리기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홈 경기장을 옮긴 사례는 5번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전 첫 해에 한국시리즈까지 오른 팀은 한 번도 없었다.

세 번은 '가을야구'를 하지 못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한 번씩이었다.

2000년 이후 첫 홈 경기장 이전은 2002년 SSG 랜더스의 전신 SK 와이번스가 인천 송의야구장을 떠나 문학경기장 야구장으로 옮긴 것이다.

SK는 2002년 61승 69패로 당시 8개 팀 가운데 6위에 머물렀다.

KIA 타이거즈는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2014년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로 옮겼는데 역시 2014년에는 54승 74패로 9개 팀 가운데 8위로 시즌을 마쳤다.

2016년에는 2개 팀이 새 경기장을 선보였다.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 넥센 히어로

즈가 목동 야구장을 떠나 고척 스카이돔으로 이전했고,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라이온즈파크 시대를 열었다.

두 팀의 희비는 엇갈렸다. 넥센은 77승 1무 66패로 3위에 오른 반면 삼성은 65승 1무 78패로 9위에 그쳤다. 이때 넥센은 2000년 이후 새 홈 경기장 데뷔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다만 준플레이오프에서는 LG 트윈스에 1승 3패로 져 탈락했다.

2019년 NC 다이노스는 마산야구장에서 창원 NC파크로 이전했고 73승 2무 69패를 기록해 5위로 '가을야구'에 턱걸이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LG에 1-3으로 지는 바람에 새 홈 경기장에서 '가을야구'를 하지는 못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홈에서 왼쪽 풀이 99m, 오른쪽 풀은 95m로 차이가 나고, 외야 오른쪽 펜스 8m, 왼쪽 펜스는 2.4m로 차이를 두는 등 홈팀인 한화 선수들도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사이에 '가을야구'에 나간 것이 2018년 딱 한 번인 한화가 새 안방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네일·로하스·에레디아 KBO 최고 몸값 외인 3인

2025년 최대 180만 달러 받아 kt, 430만 달러 '최고액 투자'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팀 전력의 핵심인 외국인 선수 영입을 마무리 짓고 있다. 9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마쳤고,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유일하게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

KIA는 기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계약을 포기하고 새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막판 계약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A가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면서 2025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 순위가 결정됐다.

새 외국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몸값은 100만 달러가 한계라서 KIA의 새 외인 타자는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5시즌 가장 많은 몸값을 받는 선수는 KIA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kt wiz의 중심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SSG 랜더스의 강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다.

세 선수는 모두 최대 180만 달러를 받는다. 네일과 에레디아는 이 중 20만 달러 옵션으로 걸려 있다. 로하스의 옵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네일은 2024시즌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의 성적으로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정규시즌 막판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에 복귀해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2.53으로 맹활약했다.

에레디아는 타율 0.360, 21홈런, 118타점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그는 타율 1위, 최다 안타 2위(195개), 타점 3위에 오르며 SSG 타선을 이끌었다.

로하스는 타율 0.329(7위), 32홈런(공동 6위), 112타점(5위)의 만점 활약을 펼쳤다. 로하스에게 180만 달러를 안긴 kt는 10개 구단 중 외국인 선수 선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 올해 LPGA 탑 뉴스는 '리디아 고 슌'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의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가 선정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골프위크는 25일 올해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벌어진 10대 주요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리디아고는 이 순위에서 12위를 휩쓸었다. 리디아고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고, 곧바로 이어진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까지 석권하며 자신의 표현대로 '동화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3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5월 US여자오픈에서 한 홀에서 10타를 친 사건이 선정됐고 4위는 LPGA 투어 물리 마쿠 서만 커미셔너의 사임이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코르다가 4월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5연승을 달린 것이다.



국가)가 5월 US여자오픈에서 한 홀에서 10타를 친 사건이 선정됐고 4위는 LPGA 투어 물리 마쿠 서만 커미셔너의 사임이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코르다가 4월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5연승을 달린 것이다.

Volvik  
COND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